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방카슈랑스 매출 감소

- 중국의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‘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분쟁 방지’ 규정의 여파로 2011년 1/4분기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4월 28일 중국보험감독위원회는 2011년 1/4분기 보험시장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전국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가 1,798.6억 위안으로 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52.3%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2.0% 감소하였다고 발표함.
 - 한편, 보험설계사 수입보험료는 1,419.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.2% 증가하였고, 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41.3%를 차지함.
 - 방카슈랑스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 판매채널이었으나, 보험 분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됨.
 -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간 또는 보험회사와 은행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활동을 불허하였으며, 2010년 11월부터 각 은행 지점은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함.
 - 이러한 규정이 은행채널 이용 수수료가 올해 들어 10% 가량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방카슈랑스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- 한편, 보험회사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방카슈랑스 판매규제로 인한 보험료수입 감소 대안으로 증권회사와 판매채널 공유를 추진함.
 - 은행의 타금융권 겸업규제 강화로 펀드판매 급감을 경험한 증권회사는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공유 제안을 수용함.
 - 증권회사는 그간 은행의 지점을 활용하여 총 펀드판매량의 70%를 판매하였음.
 -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조사연구회의를 통해 보험판매채널의 실익을 논의한 후 보험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함.

(신식신보 등, 4/28)